



|  |       |  |   |   |  |
|--|-------|--|---|---|--|
| <br>인천광역시 |       | <b>보 도 자 료</b>   |   | <br>인천의 꿈,<br>대한민국의 미래 |  |
|  |       | 배포일자   | 2022년 7월 20일(수)<br>총 2매   |   |  |
| 담당<br>부서   | 위생정책과 | 담 당 자  | • 식품안전지도팀장    문인영 ☎440-2771<br>• 담당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장진영 ☎440-2773 |   |  |
| 사진(이미지)  |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 참고자료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 |  |
| 보 도 시 점  |      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 |   |   |  |

## 인천시, 실전 같은 대규모 식중독 대응 훈련 펼쳐

- 20일 시청 구내식당서 식중독 발생 가정해 현장 대응훈련 실시 -
- 덥고 습한 날씨 음식점, 가정에서도 “식중독 예방수칙 준수해야”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확산 조기차단을 위한 기관별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20일 인천시청 구내식당 소담홀에서 10개 군·구 위생부서와 감염부서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중독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.

이날 모의훈련은 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급식을 섭취한 후 50여 명이 설사, 구토 등을 일으키며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상황을 가정해,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현장 대응 훈련으로 진행됐다.

이번 훈련은 시 위생정책과, 역학조사관, 보건환경연구원, 남동구 식품위생과와 보건행정과, 구내식당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, 관계기관의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기관별 현장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대규모 식중독 발생 대비 원인·역학조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.

주요 훈련내용은 ▲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인지와 신고 ▲식중독 발생 상황 보고 및 전파 ▲관계기관 현장출동 및 식중독 대응협의체 운영 ▲식중독 원인·역학조사반 현장조사 및 검체 채취 ▲사후조치 등이다.

강경희 시 위생정책과장은 “이번 모의훈련으로 식중독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 식중독 사전 차단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며 “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급식시설과 음식점 및 가정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” 했다.

무엇보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‘생활 속 실천’ 이 중요하다. ▲조리·식사 전, 달걀 만진 후 등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▲75℃에서 1분 이상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해 먹기 ▲물은 끓여서 마시기 ▲식재료,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·소독하기 ▲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하기 ▲칼·도마 구분사용하기 ▲보관온도 지키기 등 주요 관리요령을 꼭 준수해야 한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5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